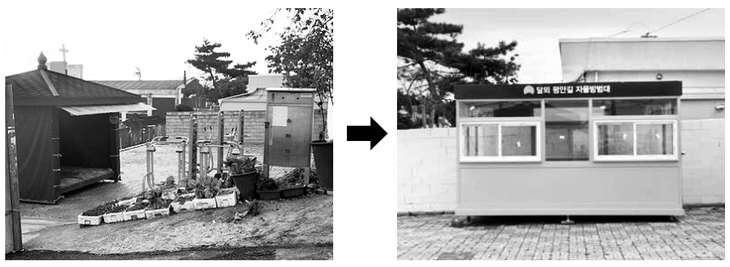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으로 새 단장한 광주 월산동 달뫼마을 가보니

밝고 산뜻해진 달동네… "밤길 안 무섭네요"

방범초소 설치 전후



보안등 설치 전후

우범지대 곳곳 CCTV
방범초소·보안등도 설치
범죄 줄어들지 큰 관심
빈집 출입제한 미흡 아쉬움

18일 광주시 남구 월산동 달뫼마을은 밝고 활기찬 기운이 샘솟았다. 밤이면 어두워 혼자 다니기 무서운 동네, 낮에도 으슥한 동네, 우범지대로 지목된 달동네 분위기가 산뜻하게 바뀌었다. '범죄예방디자인(CPTED·셉테드)' 효과다. 셉테드는 범죄 예방에 디자인 개념을 반영한 것으로, 도시나 주거환경을 바꿔 사람들의 통행을 늘리는 등 폐쇄적 공간을 개방적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다. 이제 범죄가 줄어드는 일만 남았다. 얼마나 걸릴까.

골목길 벽면을 채웠던 온갖 낙서는 밝고 따뜻한 색 페인트로 곱게 단장됐다. 한 집 건너 한집 꼴로 밀집한 빈집에는 '출입제한 구역'임을 알리는 시설물이 설치됐다. 그동안 일대 빈집이 비행 청소년이나 노숙자, 범죄자의 거처로 활용됐기 때문이다. 광주 대표적인 달동네인 월산동은 남구의 공·폐가 538곳 중 절반 이상인 273곳이 밀집해 있다.

고장난 채 방치됐던 '무늬만' 가로등도 새롭게 정비됐고 어린이가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경찰서와 연결된 방범벨도 달아놨다. 미로처럼 얽혀있던 골목길의 모퉁이에는 24시간 골목 구석구석을 살필 수 있는 방범용 CCTV까지 설치됐다.

월산동은 광주의 대표적인 '우범지대'로 손꼽혀왔다. 남구 전체 범죄 발생 건수의 40%가량을 차지한다.

광주시 남구 월산동 달뫼마을의 빈집 입구에는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물이 설치됐고 〈위〉 미로처럼 얽힌 골목길의 모퉁이에는 이정표가 들어섰다. /최현배기자 choi@

올해도 현재까지 월산동 일대에서만 발생한 성폭력 범죄가 26건에 달한다. 절도 234건, 폭력 256건 등 사건 신고가 하루가 멀다하고 이어질 정도였다. 지난해도 성폭력 사건 21건을 비롯, 675건의 크고 작은 범죄가 끊이질 않았다.

광주지검이 법무부와 지난 6월 월산동 달뫼마을을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환경 개선에 들어간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6개월간 달뫼마을에 CCTV 3대, 비상벨 3개, 보안등 4개, 반사경 3개 등 시설물이 설치됐고 마을 입구 오르막길에는 방범초소 1곳이 자리를 잡았다.

시설물을 설치할 때도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광주지검은 환경 개선사업 시행에 앞서 주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 ▲공공 방범시설물 설치 ▲공폐가 관리 ▲비행청소년 문제 해결 등을 요청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했다.

빈집 13곳에는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물이 걸렸고 '미로' 같은 골목길과 갈림길에는 30개의 산뜻한 이정표가 부착됐다. 골목길을 어둡게 만드는 벽면 63곳에 밝은색 페인트를 입혔다.

마을 주민들은 "마을 전체가 산뜻해졌다. 확실히 덜 무섭다"고 반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하지만, 일부에선 조심스럽게 "경찰이 주의 깊게 보는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생겨 자칫 '우범지대'라는 인식이 퍼져 덩달아 집값도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법무부 등이 3억여원을 들였지만 개선할 점도 눈에 띈다. 설치된 CCTV(3대)가 부족하고 빈집이 276곳이나 되는데 출입제한 시설물은 13곳에만 설치된 점도 아쉽다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

달뫼마을에 20년째 거주한다는 주민은 "마을 전체가 산뜻하게 바뀐 것은 사실"이라며 "골목길과 빈집이 수십, 수백 개인데도 설치된 CCTV나 폐가 출입 제한 설치물 등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검은 이날 오후 4시 달뫼마을에서 법질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셉테드 사업' 준공식을 열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무면허 운전자 바꿔치기·바지 사장·원산지 둔갑 등

광주지검 올해 '假裝 범죄' 423명 적발

〈가장〉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인명피해를 낸 뒤 처벌이 두려워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우는가 하면, '바지 시장'을 내세워 불·탈법 행위를 서슴지 않고 원산지를 허위로 둔갑시키는 행위까지….'

검찰이 진실을 은폐한 채 '합법'으로 포장해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가장(假裝)범죄' 척결에 나서 423명을 적발했다.

광주지검은 18일 지난 3월부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가장범죄 단속에 나서 423명을 적발해 76명을 구속 기소하고 260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22명을 수배했고 6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중이다.

검찰은 ▲속칭 '총대 사범'이라 불리는 '진범' 가장 범죄(22명 적발·3명 구속기소) ▲범죄의 단골 소품(小品)으로 전락한 '대포차','대포폰', '대포통장' 등 '대포' 물건 범죄(63명 적발·28명 구속 기소)▲원산지 둔갑 행위(17명 적발·2명 구속 기소) 및 자격증 대여(10명 적발·1명 구속 기소) 등 명성·신뢰 가장 범죄 ▲보조금(11명 적발·30명 구속기소)·보험금(87명 적발·4명 구속기소)을 노린 가장 범죄 ▲위증(47명 불구속 기소)·무고(2명 구속 기소) 범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검찰은 또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축산물 위생 감시원을 둘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상 미비점 개선을 건의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 20일 총파업 경고

외국인 불법고용 퇴출 요구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건설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설노조 20여 명은 18일 오전 광주시 북구 신안동 모 건설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회견을 통해 건설노조는 외국인 불법 고용을 일삼는 하도급 업체들을 건설현장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청업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는 20일 광주·전남지역 전체 건설현장 노조원 500여 명이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설노조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를 들어, "전국 건설노동자 80만명 중 외국인 인력이 30만명에 달한다"며 "이들 가운데 8%(7만명)만이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불법 고용은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가중시키고 미숙련 외국인 인력으로 부실시공 우려가 있다는 것이 건설노조측의 설명이다.

이희 건설노조 사무국장은 "노사간 갈등을 중재하기는커녕 하도급업체의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건설업체가 적지 않다"며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전국적 규모의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조현아 전 부사장·임직원 통신자료 압수수색

'땅콩 리턴' 축소·은폐 보강 수사

'땅콩 회항'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이번 사태를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전날 조현아 전 부사장을 포함해 대한항공 임직원 여러 명에 대한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추가로 발부받았다.

검찰은 수사 초기에도 통신기록을 압수했지만, 이번에는 사건 발생 직후인 6일 이후부터 최근까지로 기간을 더 늘려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통신기록 압수 대상 인원도 더 늘렸다.

영장을 통해 발부받은 통신자료에는 시간과 날짜 등 통화기록이 자세히 기재돼 있다. 검찰은 대한항공 차원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상대로 거짓진술을 강요하고 회유한 정황 등이 어느 정도 확인된 만큼 통신기록을 바탕으로 조 전 부사장이 전 과정을 실시간 또는 사전·사후에 보고 받았는지를 입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광주 119 신고 2건 중 1건 "어! 잘못 걸렸네요"

연결오류 전화 49%나

광주지역 119 신고전화 2건 중 1건은 잘못 걸려온 전화이거나 전화연결이 안되는 연결오류 신고전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광주시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 현재 광주지역 119 신고전화건수는 모두 31만6519건으로 이중 연결오류신고전화 건수는 49.21%인 15만5763건이다.

지난해엔 119 신고전화 38만5275건 중 50.91%인 19만6173건이 연결오류 신고전화였다.

유형별로는 무응답이 6만9479건(21.95%)으로 가장 많았다. 무응답은 잠금상태에서도 119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폰을 호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다가 의도치 않게 긴급버튼이 잘못 눌러져 연결되는 경우다. 이어 ARS(자동응답시스템) 종료와 오접속이 각각 5만7810건,2만8474건이었다.

ARS 종료는 119 신고전화가 한꺼번에 폭주할 경우 '잠시 대기해 달라'는 안내와 함께 통화 대기상태로 연결되는데, 이 과정에서 신고자가 전화를 끊는 경우를 말한다.

시소방안전본부가 동시에 신고전화를 받을 수 있는 회선은 모두 12개. 13개~60건은 ARS 통화 대기상태로 전환되며, 61건부턴 통화중 상태로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다.

오접속은 전화를 잘못 건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119 신고전화 2건 중 1건이 연결오류 신고전화로, 정작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출동이 지연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시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119 신고전화는 위급한 상황에 처한 환자 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되는 만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연말 광주 잇단 콘서트에 인터넷 암표거래·사기 성행

쌍나팔

○…연말을 맞아 광주에서 열리는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이 인터넷에서 사기 도구로 전락.

○…18일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등에 따르면 오는 20일 광주시 염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리는 박효신 콘서트 티켓이 정가(7만7000원~14만3000원)를 훨씬 웃도는 27만 원에 팔리는가 하면, 웃돈을 주고 산 뒤에도 티켓을 받지 못했다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

○…해당 사이트는 티켓거래 시 안전거래 시스템을 악용, 중간에 티켓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수법이라며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3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4타경 4454	1	목포시 옥암동 1274-2 남악프라자1 비동 4층 402호 89.57㎡	아파트	164,000,000 164,000,000	
2014타경 5334	1	목포시 영산로535번길 6, 101동 3층 303호 [상동,호반리젠시빌아파트] 84.8842㎡	아파트	130,000,000 130,000,000	
2014타경 8500	1	목포시 평화로14번길 5, 3층 301호 [상동,다나샤르망4차] 84.6㎡	아파트	200,000,000 200,000,000	
2014타경 12196	1	영암군 삼호읍 모일항길39-18, 104동 11층 1103호[영암삼호제이에스희망가]59.9456㎡	아파트	118,000,000 118,000,000	토지별도등기있음
	2	동소 39-18, 105동 1층 101호 [영암삼호제이에스희망가] 59.9456㎡	아파트	112,000,000 112,000,000	토지별도등기있음
[대지/임야/전답]					
2014타경 8562	1	무안군 일로읍 망월리 444-2 2428㎡	전	70,412,000 70,412,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4타경 9343	1	무안군 삼향읍 임성리 1049-4 66㎡[노치헌지분2분의1전부][매각대상아닌인접지소재타인소유부속건물본건일부에걸쳐소재,법정지상권성립여부불명]	대	9,075,000 9,075,00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2014타경 9978	1	목포시 율도동 403-1 507㎡[매각대상아닌건물소재로인해법정지상권성립여지있음]	대	13,689,000 13,689,000	
2014타경 10152	1	무안군 삼향읍 용포리 415 562㎡	전	52,025,000 52,025,000	일괄매각.지분매각.박태준지분2분의1전부
		동소 415-2 1519㎡[물건번호1:농지취득자격증명요.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전		
2014타경 11292	1	신안군압해읍 복룡리323-1 301㎡[매각대상아닌건물소재인해법정지상권성립여지있음]	대	11,137,000 11,137,000	
2014타경 11445	1	무안군 몽탄면 귀학리 307 3657㎡	전	33,644,400 33,644,4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4타경 11537	1	함평군 엄다면 송로리 910 1613㎡	전	53,119,000 53,119,000	일괄매각.목록1,2매각대상아닌건물소재로인해법정지상권성립여지있음
		동소 911 2090㎡	전		
		동소 913 1126㎡[물건번호1:농지취득자격증명요.목록2,3구분지상권말소되지않고매수인에게인수됨]	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4타경 11537	2	동소 914 1302㎡	전	82,309,000 82,309,0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목록4구분지상권말소되지않고매수인에게인수됨
		동소 915 1937㎡	전		
		동소 916 2827㎡	전		
		동소 919 1752㎡	전		
2014타경 11650	1	신안군 자은면 백산리 산77-3 14231㎡	임야	19,923,400 19,923,400	연고미상분묘소재여부불분명
2014타경 12066	1	목포시 죽교동 585-7 374㎡[매각대상아닌건물소재로인해법정지상권성립여지있음]	대	34,110,000 34,110,000	수목포함.도시계획시설[도로]저촉
2014타경 12271	1	신안군 지도읍 자동리 3 261㎡[일부현황도로로이용중]	전	1,487,700 1,487,7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	동소 20 1388㎡[매각대상아닌시설하우스소재.일부도시계획시설[도로]저촉됨.타지번과일단지]	전	8,328,000 8,328,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일부현황도로로이용중
	3	동소 2024-1 2672.5㎡	답	32,610,790 32,610,79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2024-2 1674.6㎡	답		
		동소 2024-3 1435.6㎡	답		
	4	신안군 지도읍 태천리 640 1230㎡	답	4,797,000 4,797,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5	동소 739 850㎡	답	3,230,000 3,23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4타경 11216	1	목포시 산정동 1086-34 464.8㎡	대	517,114,280 517,114,280	일괄매각.유치권신고있음-[유]창원플랜-공사대금-5,500만원-성립여부불명
		목포시 산정로 66 1층98.4㎡[기술계강습소] 2층98.4㎡[주택]	근린시설 및주택		
		동소 66 [산정동,제2동] 135.24㎡ 제시외 창고 등 186.8㎡[제시외건물포함]	소매점		
2014타경 11797	1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849-6 206㎡	대	171,775,440 171,775,44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무안군 무안읍 면성1길3 139.59㎡ 제시외 화장실 17.16㎡	주택및점포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15. 1. 5. [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5. 1. 12. [월] 14: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01호 경매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4. 12.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법보좌관 형남곤